

## 리서치 브리프

#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소비자동향

2025. 09.

목적 :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반응과 향후 영향력 전망

분석 데이터 : 전국 만 20~69세 금융소비자 1,038명 ('25년 8월 18일 ~ '25년 8월 29일까지 주례 약 500명)

연관 키워드 : #예금자보호 #5천만원 #1억원 #상향 #확대 #예금 #은행

# SUMMARY -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따른 소비자동향

## ■ 예금자보호한도 확대에 대한 인지도는 80% 이상으로 높은 수준

3page

- 5000만원 이상 은행에 예치한 금융소비자는 90% 이상으로 더욱 높아

## ■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로 인한 신뢰도 향상 기대...실제 예금거래에도 긍정적 전망

4page

- 5000만원 이상 은행 예치자의 10명 중 7명이 긍정적(신뢰, 추가거래 등)인 영향을 줄 것이라 인식
- 예금을 더 고려하겠다는 응답도 67%로, 실거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
## ■ 예금 자산 통합시 은행 선택, '관계/관성 중심' vs '조건 중심' 목적의 두가지 흐름 나타나

5page

- 자산 통합의향은 5000만원 이상 은행 예치자의 87%(전체 금융소비자 기준으로는 32%)
- 주로 고려하는 은행은 기존 거래하던 시중은행 또는 좋은 조건의 인터넷뱅크와 제2금융권
- 주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조건이 좋다면 거래 없던 은행으로도 자산통합 의향 있어

<이하 '유료 구독회원' 전용>

## ■ 흩어진 자산은 어떤 은행으로 가장 많이 모일까?

7page

1. 예금자보호제도 및 확대사실 인지도

# 금융소비자 80% 이상 1억으로 상향 "알고 있다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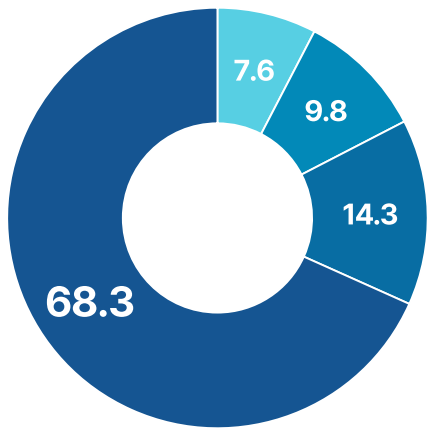
- 금융소비자의 92.4%가 예금자보호제도를 알고 있으며, 은행 예금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95% 이상으로 인지도가 높음
- 예금자보호한도가 '9월부터 1억원으로 확대'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비율도 82.6%로 높으며, 특히 은행 예금 5000만원 이상 예치자는 90% 이상이 인지하고 있음

[예금자보호제도 및 확대 사실 인지 여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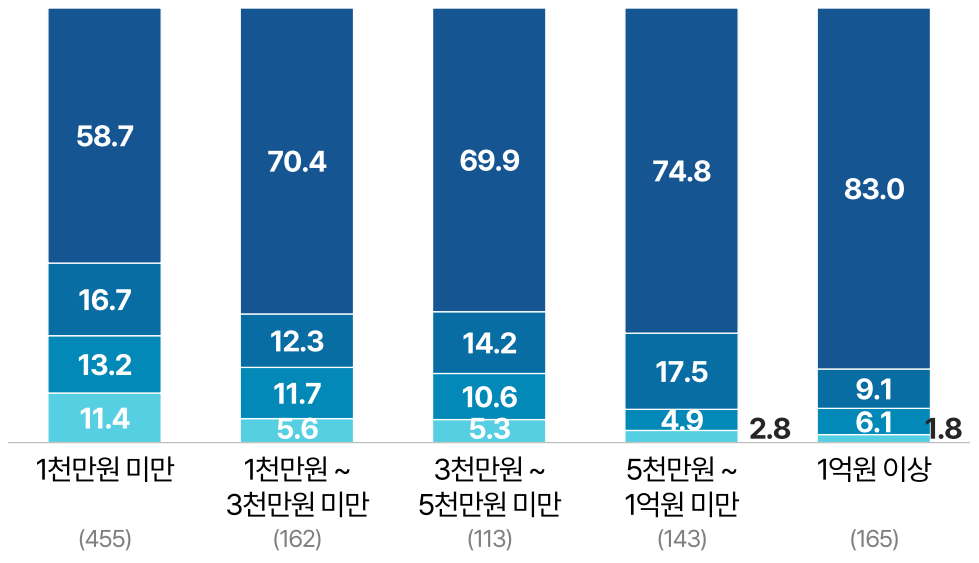
(Base : 전국 만 20~69세 1,038명, 단위 : %)

전체	
제도 인지율 ▶	92.4
확대 인지율 ▶	82.6

은행 예치자산별 인지도					
제도 인지율 ▶	88.6	94.4	94.7	97.2	98.2
확대 인지율 ▶	75.4	82.7	84.1	92.3	92.1



- 제도내용과 확대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음
- 상향된다고 들었지만,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음
- 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상향되는 것은 몰랐음
- 예금자보호제를 몰랐음



Q 귀하께서는 2025년 9월부터 『예금자보호』로 보장하는 금액한도가 은행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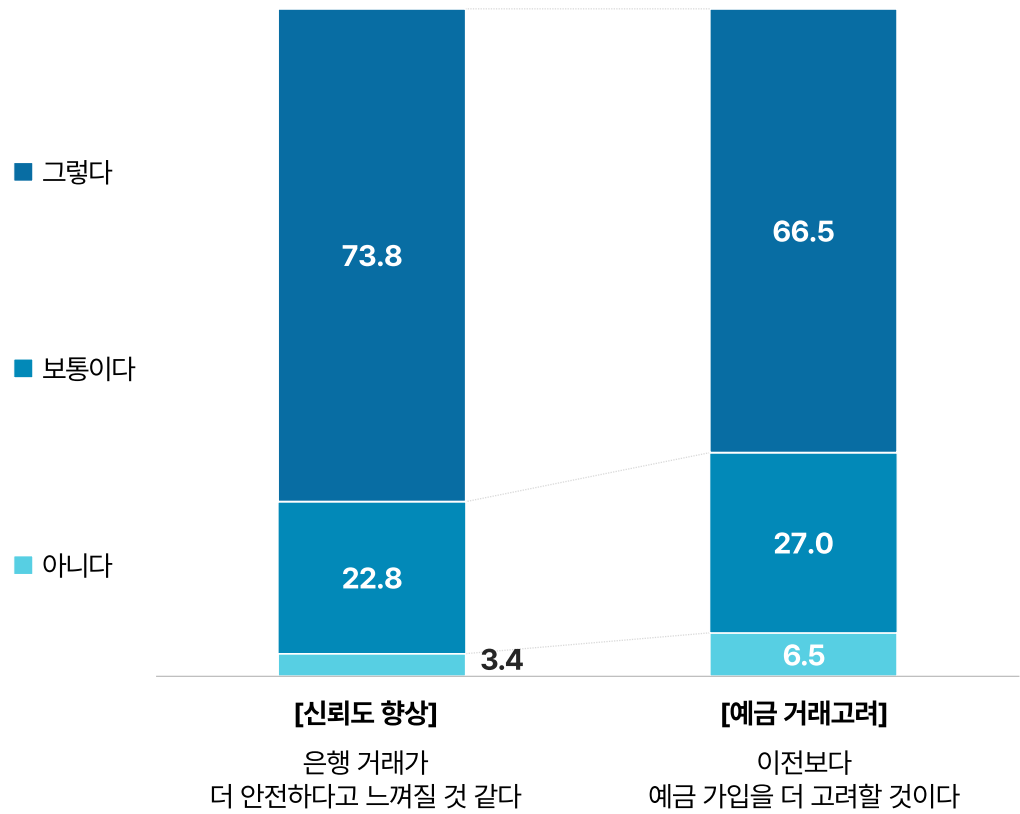
# 5000만원 이상 예치 고객 3명 중 1명 "추가 가입 고려"

- 은행예치자산 5000만원 이상인 382명의 제도변화에 대한 인식을 점검
- '은행 거래가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것 같다'는 비율이 73.8%(**전체 금융소비자 기준 27.2%**)로, '신뢰도 향상'에 대한 긍정 의견이 가장 많았음
- '이전보다 예금 가입을 더 고려할 것'이라는 응답도 66.5%(**전체 금융소비자 기준 24.5%**)에 달해 고액 예금자의 거래 확대 가능성이 엿보임

## [예금자보호한도 확대 시 영향]

(Base : 은행예치자산 5000만원 이상 보유자 382명, 단위 : %)

### "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면..."



Q 다음 내용에 귀하께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선택해주시시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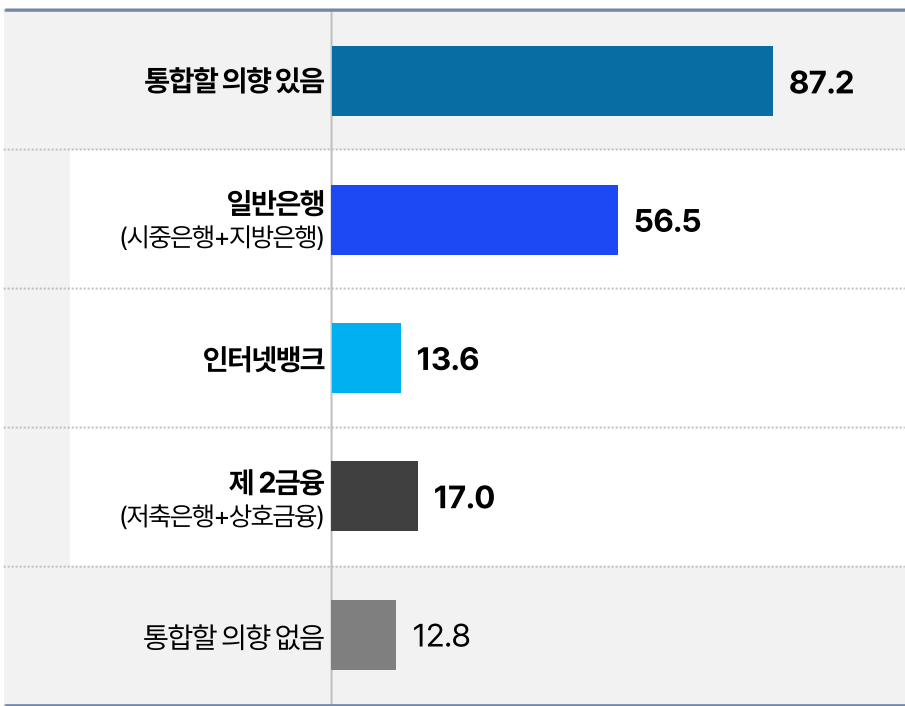
3. 예금보호확대 시 분산된 자산 통합 은행

# 기존 주거래 은행만큼 부거래 은행으로도 통합 선호해

- 예금자보호한도가 확대됨에 따라, 은행 예금 5000만원 이상 예치자의 87.2%(전체 금융소비자 기준 32.1%)는 여러 금융사로 분산된 자산을 은행으로 통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
- 자산을 통합할 은행으로 '일반은행(시중은행+지방은행)' 선택 비율이 과반이었으나, '인터넷뱅크' 또는 '제2금융'을 꼽은 비율도 30%를 넘음
- 주거래은행(41.1%)보다 부거래은행(45.0%)으로 통합할 의향이 더 많고, 거래하지 않던 은행으로 통합할 의향도 7.5%에 달함. 이는 인터넷뱅크 및 제2금융 이용자의 주거래 은행 선택 비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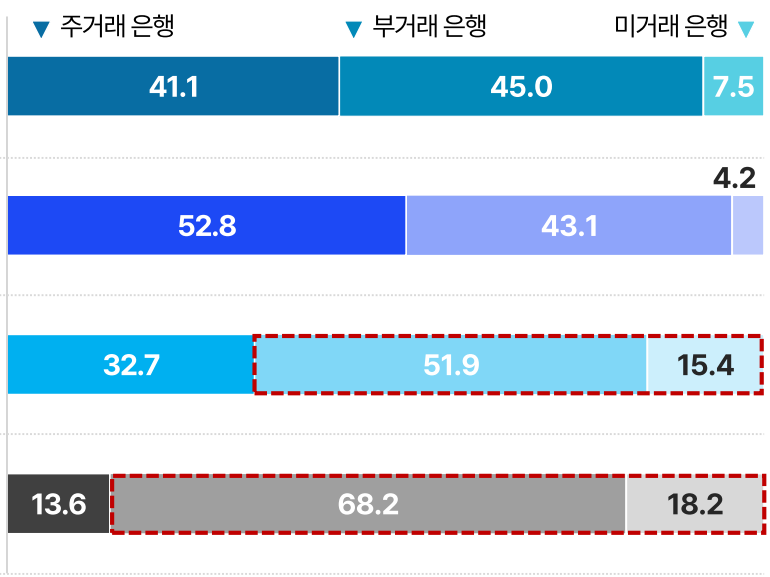
## [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, 분산된 자산을 통합하고 싶은 은행\*]

(Base : 은행예치자산5000만원 이상 보유자 382명, 단위: %)



\* 브랜드별 통합의향은 회원전용 페이지에서 공개

## "응답하신 은행은 주거래 은행인가요?"



\*\*저축은행(21명)은 분석에서 제외

Q 귀하께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확대된다면, 여러 금융회사로 분산된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? 있다면 어떤 은행으로 모으시겠습니까?

4. 자산 통합 은행 선택 이유

# '거래 은행' 우선 고려하지만 '금리 등 조건'도 많이 따져

- 다수의 예금자들은 기존 거래 경험이 있는 은행(54.1%)을 우선 고려하지만, 금리 등 조건(42.9%)을 중시하는 실리적 선택도 적지 않음
- 또한 대출·우대혜택(25.2%)이나 은행 규모·브랜드(21.9%), 자산관리 서비스(13.5%), 전담/PB직원(7.8%) 등 다양한 요인이 의사결정에 작용
- 이는 고객의 자산 통합은행 선택 기준이 단순히 예금 안전성 차원을 넘어 '관계/관성 중심형'과 '조건 중심형'으로 양분되고 있음을 보여줌. 일반은행의 경우 '관계/관성 중심', 인터넷뱅크/제 2금융은 '조건 중심'의 비중이 특히 높음
- '관계/관성 중심'이 높은 시중은행은 고객 관리에 집중하면서 인터넷뱅크·2금융권의 금리 경쟁과 디지털 편의성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. 결국 예금자보호한도 확대는 은행 간 자산 유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

## [자산 통합 시 통합 은행 선택 이유]

(Base :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시 자산 통합의향자 333명, 단위 : %)

	전체	통합하고 싶은 은행		
		일반은행 (216)	인터넷뱅크 (52)	제 2금융 (65)
기존 거래 이력이 많은 곳이라서	54.1	<b>63.9</b>	38.5	33.8
금리 등 조건이 좋아서	42.9	24.5	<b>63.5</b>	<b>87.7</b>
대출, 우대금리 등 거래 규모에 따른 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	25.2	25.5	19.2	<b>29.2</b>
점유율/규모가 큰 은행이라서	21.9	<b>30.6</b>	9.6	3.1
자산관리 서비스가 잘 되어 있어서	13.5	12.5	<b>28.8</b>	4.6
전담 직원/PB가 있는 곳이라서	7.8	10.2	0.0	6.2

Q 분산된 자산을 OO(자산 통합 은행)으로 모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